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전국대회 2관왕



화순군은 화순군청 배드민턴부가 올해 첫 전국대회에서 2관왕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경상남도 밀양시 배드민턴경기장에서는 '2021 전국동계대학·실업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열렸다.

전국동계대학·실업배드민턴선수권대회

단식-전주이·복식-유채란·정나는 '금'

지난 7일 열린 단식 결승전에서 화순군청 소속 국가대표 전주이 선수가 시흥시청의 백수민 선수를 2대 0으로 이기며 금메달을 확보했다. 여자복식에서는 화순군청 최고참 선수인 유채란 선수와 국가대표 정나는 선수가 포천시청 이정현, 고아라 선수와의 결승전 대결에서 2대 0으로 완승을 거뒀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지 훈련이 취소되는 등 힘든 여건 속에서



광주대, 전국 춘계대학축구연맹전 우승

전국대회 8년 만에 왕좌 탈환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대학 최강자를 가리는 춘계대학축구연맹전 정상에 올랐다. 팀 창단 5년 만에 우승을 일궈낸 2013년에 이은 8년 만에 왕좌 탈환이다. 광주대는 경남 통영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바다의 땅 통영 제57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한산대첩기 결승에서 제주국제대를 5대 1로 대파하고 전국 최강팀으로 우뚝 섰다. 광주대는 예선경기에서 축구 강호로 손꼽히는 중앙대와 고려대를 격파하고 조1위로 16강에 진출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승산대와의 16강 경기에서 1대 0 승리한 광주대는 8강에서 한남대(4대 0), 준결승에서 청주대(2대 1)를 차례

'ML 시범경기' 양현중 "설레는 마음...아직 100% 아냐"

LA 다저스전, 1이닝 1피홈런 1실점...세이브 수확



텍사스 레인저스 양현중. (사진=텍사스 구단 화상 인터뷰)

미국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데뷔전을 치른 양현중(33·텍사스 레인저스)이 "긴장보다 설레는 마음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현중은 8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 스타디움에서 열린 LA 다저스와 시범경기에서 1이닝 2피안타(1홈런) 1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8회 마운드에 오른 양현중은 빠르게 아웃카운트 2개를 잡았지만 DJ 피터스에게 던진 변화구를 통타 당

해 솔로포를 허용했다. 이어 제임스 아웃맨에게도 안타를 맞았지만,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지었다. 8회까지 진행된 이날 경기에서 텍사스가 4-3으로 이기며 양현중은 세이브를 수확했다. 양현중은 경기 후 화상 인터뷰에서 "긴장보다 설레는 마음이었다. 타자도 타석에 서고, 관중도 있어서 재미있게 던졌다"고 첫 등판을 돌아봤다. 투구에 대해서는 "아직 100%는

아니지만 서서히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좋아지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짚으며 "처음 시작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다음에 마운드에 올라갔을 때 내 공을 던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선수들과 좋은 경쟁을 해야 한다. 맞춰서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현중의 투구 수는 21개. 그러나 전반적으로 변화구 제구가 좋지 않았다. 양현중은 "변화구가 전체적으로 높게 들어갔다. 직구나 볼런스가 좋지 않아 변화구가 좋지 않았다"고 아쉬운 부분을 짚었다. 그는 9일 코칭 스태프와 몸 상태를 점검하고 이후 등판 계획을 잡을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KBO리그 KIA 타이거즈에서 에이스 역할을 맡았던 그는 지난해 텍사스와 스플릿 계약을 맺었다. 안정 대신 도전을 택한 그는 한국에서와 달리 볼펜으로 나서는 등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양현중은 "확실히 선발보다 몸 푸는데 단점은 있지만, 경기 전 투수

코치님께서 편하게 루틴대로 준비하라고 해주셨다"며 "볼런스에 문제가 있었지만 준비과정은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선발과 볼펜의 차이에 대해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핑계 대고 싶지 않다"고 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는 의지가 드러났다.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소속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는 양현중은 빅리그 입성을 위해 이번 시범경기에서 기량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정규시즌 개막까지는 채 3주가 남지 않았다. 양현중은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줘서 단점이나 보완할 점, 전력분석을 통해 비디오투를 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준비한다면 다음 경기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했다. 이번 경쟁을 이겨내면 '메이저리거'라는 진짜 꿈에 한 발 더 가까워진다. "가장 큰 목표는 메이저리그에서 던지는 것이다. 지금도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시범경기지만 여기 좋은 모습을 보여야 더 큰 무대에 도전할 수 있다"며 남은 스프링 트레이닝에 대해 각오를 다졌다. 뉴스

TEX 감독 "양현중, 피홈런이 유일한 흠...평정심 돋보여"

"아주 훌륭한 성격" 흠족

텍사스 레인저스의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이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서 첫 등판한 양현중의 직감함을 높이 평가했다. 8일(한국시간) MLB닷컴에 따르

면 우드워드 감독은 양현중에 대해 "첫 메이저리그 등판에 흥분할 수 있었지만 마운드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등 평정심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우드워드 감독은 "피홈런 하나가 유일한 흠이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터스에 대한 정보가 더 있었다면 아마 다른 투구를 했을 것"이라고 감탄했다. 그러면서 평정심을 유지한 채 자신의 투구를 한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우리가 볼펜에서 본 것과 똑같은 투구를 했다. 에너지를 볼 수 있

었지만 그의 투구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치켜세웠다. 양현중의 성격에 대해서도 "아주 훌륭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 야구는 분명 우리의 일이지만, 그가 매 순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흠족해했다. 뉴스



타슈켄트 그랜드슬램 김성민, 은메달 획득

2021 타슈켄트 그랜드슬램에 출전한 남자 유도의 김성민(필룩스)이 아쉽게 금메달을 놓쳤다. 김성민은 7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대회 남자 100kg 이상급 결승전에서 가게우라 고코로(일본)에게 패했다. 아쉬운 은메달이었다. 김성민은 가게우라에게 지도 2개를 이끌어내며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나갔다. 종료 55초 전 지도 1개를 빼앗겼지만 여전히 우위를 점한 쪽은 김성민이었다.

하지만 마무리가 좋지 않았다. 경기 종료 3초를 남기고 가게우라의 공세에 절판을 내졌다. 김성민은 아쉬움에 메드를 내려쳤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된 뒤였다. 같은 체급의 김민중(용인대)은 동메달 결정전을 통해 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78kg 이상급에서는 김하윤(한국체대)이 3위에 이름을 올렸다. 2019년 세계선수권 우승자인 소네 아리카(일본)는 1년3개월 만의 국제대회 실전에서 금메달 획득으로 건재를 과시했다. 한국은 금 1개, 은 1개, 동 4개로 전체 3위를 차지했다. 종합우승은 금 9개, 은 1개, 동 1개의 일본에 돌아갔다.

'3연속 톱10' 전인지 "골프에 대한 마음가짐 바뀌었다"

전인지(26)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3개 대회에서 연속 '톱 10'에 진입한 후 골프에 대한 마음가짐이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전인지는 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오칼라의 골든 오칼라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LPGA 투어 드라이브 온 챔피언십(총상금 150만 달러) 마지막 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7언더파 281타를 친 전인지는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인지는 이번 시즌 다이아몬드 리조트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4위, 개인브리지 LPGA에서 공동 8위에 오른 바 있다. 전인지는 "지금 플레이에 굉장히 만족한다. 다시 돌아온 것 같아 기쁘고, 코스 위에서 플레이를 즐기게 된 것 같다. 파팅도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번 시즌 변화에 대해 "팬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가장 큰 변화는 퍼터를 바꿨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크게 느껴지는 변화는 코스에서 골프



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골프를 하는 시간이 다시 너무 즐겁고 행복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전인지는 이번 시즌 계획에 대해 "아직 확실하진 않다. 쉬는 기간 동안 연습을 계속 할 것이고 그 후에 달라진 나 자신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시, 공공체육시설 5곳 신축·7곳 환경 개선

올해 213억 투입...신축 5곳 등 모두 14곳 대상 무등경기장 리모델링, 월드컵경기장은 개·보수

광주시가 해마다 늘어나는 공공체육시설 사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4곳에 2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환경개선 사업에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개방형체육관 2곳과 한국수영진흥센터 1곳, 국민체육센터 2곳 등 모두 5곳은 새로 건립하고, 무등경기장과 월드컵경기장 등 노후시설 9곳에 대해서 리모델링 등 개·보수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방형 체육관은 평동산단과 빛그린산단에 100억 원씩 모두 20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500㎡에 지하 1층,

지상 2-3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다목적룸 등이 포함되며 5월 중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2022년 5월 중 완공할 계획이다. 남부대에 들어선 한국수영진흥센터는 370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8755㎡ 규모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7월까지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설계 공모와 실시계획을 완료할 예정이다. 생활 SOC사업의 하나로 시행되는 국민체육센터 2곳은 무등경기장과 상무시민공원에 70억 원씩, 모두 14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000~3200㎡에 체육관과 수영장, 헬스장 등으로 구성

하며, 올해 3월중 실시계획을 마치고 내년 12월 완공된다. 무등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은 2018년부터 총사업비 458억 원을 투입해 야마추어 야구장과 1000㎡의 지하주차장, 주민 휴식공간 등으로 세단장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2월 착공했으며, 2022년 4월 준공된다. 또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서구 월드컵경기장은 지붕 구조의 안전을 위해 보수보강과 녹방지 페인트칠 등을 시행할 계획으로,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상반기에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개장한 축구 전용구장은 13억 원을 투입, 관람석 안전시설 보강과 화장실, 매점 등 부족한 부대시설을 확충하고 올해 상반기에 실시계획을 완료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윤희기자



광주 무등경기장 국민체육센터 조감도.

이 밖에도 시는 시체육회, 도시공사에 위탁관리중인 33곳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물 파손과 노후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설물의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예산을 투입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여가 활동과 건강 증진을 위해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다양한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윤희기자